

# 卵價 對策으로 9억 5천만圓 사료 안정을 위해 87억여圓

—1975년 일본농림성 예산안—



일본 농림성은 1975년도의 농림성 예산안을 확정 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양계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량 증식관계 예산으로는 모두 계속 사업으로써 우량 증계 집단 육성 사업 43,385천圓(4개소 보조율 1/3),

양계 단지 육성 파이롯트 사업 196,583천圓(3개소 보조율 1/3), 우량계 상성 테스트 사업 20,125천圓, 외국 병아리의 성능 조사 사업 9,803천圓, 닭의 항병성 육종 사업 10,572천圓, 닭의 우량 육종 소재 활용 대책 사업 4,676천圓, 실용 후보계 야외 조사 사업 712천圓 등이다.

계란 계육 유통관계 예산으로서는 계란 가격 안정 대책으로 난가(안정)기금의 강화사업 859,950천圓과 계란 생산 조정 취진 사업비 92,543천圓, 합계 952,493천圓으로 큰몫을 차지하고 있다(이는 신규 사업이다) 위의 난가 안정기금의 강화 사업은 필요한 보전재원을 국가와 생산자가 총액 34억圓을 1/2씩 반분하여 2년간에 적립하기로 한것을 75년도 예산에 국가 분담분을 요구한 것이다. 이리하여 기금을 강화하여 생산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기금 가입자에 대한 계획 생산의 실행을 의무화 하고 계획생산을 준수하지 않는 가입자는 보전금을 지불치 않는등 기금제도를 개선하여 계획 생산의 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계란의 생산조정 취진사업비는 市町村(우리나라의 市都面)계란 수급 조정협의회(대상은 약 1,100市町村)에 대한 관계 경비의 보조로써 이는 국가가 1/2, 都道府縣(우리의 경우 特別, 直轄市와 道)이 나머지를 보조하기로 한 국가 분담분이다.

계란 관계로써 이밖에 계란 집출하 시설정비 사업 51,718천圓(5개소 보조율 1/5) 계란 가공합리화 센터 설치사업 175,157천圓(2개소 보조율 1/3) 등이 있다.

부로일러 관계로는 신규 사업으로 부로일러 조정 보관 추진 사업 7,920천圓이 있다. 이는 부로일러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지의 처리장에서 조절 보관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관경비(창고료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이자의 1/2을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 식조 사업 협동조합(가칭)이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만든 후에 보조를 한다는 선조적화의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이밖에도 계속 사업으로 포장 식육 유통체계 정비추진사업 59,985천圓(1개소 보조율 1/3), 식계유통 근대화 센터 설치사업 265,522천圓(3개소 보조율 1/3) 등이 있다. 또 계란, 부로일러의 생산출하 조정 지도사업(계란 47縣 부로일러 38縣)은 33,551천圓이다.

이밖에 위생관계, 환경보존관계, 유통사료 관계 등 신규 예산

이 많지만 특히 배합사료 가격 안정 대책을 위한 87억 6,900만圓의 예산이 눈에 띈다.

이것은 현재 있는 3개의 배합사료기금 위에 추가금(역자가 임의로 붙였음(親오야基金)으로써 배합사료 가격 안정기구를 설치하되 자본금은 국가가 2억 5천만圓, 3기금이 2억 5천만圓을 출자하여 관리 운영경비는 이 출자금에서 생기는 이자로써 운영한다 보전 재원은 국가와 3기금이 각기 1/2씩 지출하여 4년간에 800억을 적립하기로 하고 초년도인 75년에 국가는 85억을 지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료가격 안정기구의 보전은 수입 사료원료의 가격이 기준가격(금후점토)을 15%이상 올라 이에 의하여 배합사료의 가격이 기준가격(이것도 금후점토)을 8%이상 올라서 3개월이상 지속될때 3개기금을 통하여 농가에 보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현행 3기금은 종래 방식에 의한 통상적인 보전 업무는 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행한다.

사료관계의 신규예산으로 수입사료의 안정된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수출국과의 장기 매입을 추진하기 위한 수입사료 장기 계약 추진사업 7,026천圓, 사료의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과 사료첨가물의 규제등 개정사항의 보급철저를 꾀하는 유통사료대책 지도비 38,916천圓 등이 있다.



## EC지역 계란자급도 높아

EC역내(域內)에서의 계란 공급 사정은 근래에 와서 자급자족의 단계에 이르렀다. 생산성의 향상으로 앞으로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생산의 부족보다는 오히려 생산 과잉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독은 지금까지는 계란의 수입국이었으나 자급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화란과 벨지움도 수출량이 줄고있어 업계

는 축소되고 있는 느낌이고, 불란서, 이태리는 1977~78년에는 자급이 가능한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양계 구조는 소규모 양계장이 정리되고 대규모 양계장으로 될 것이다. 덴마크의 제3국용 계란 수출의 잔량은 EC내 수출용으로 내게 될 것이지만 EC내 각국의 자급도가 높아질 것으로 자국내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계란 수요는 당분간 보합상태가 유지될 추이이지만, 생산성증가에 따른 수당(首當)산란율 향상으로부터 오는 실질적인 수수 감소도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영국의 양계 규모는 1~3萬수의 중간 규모의 생산자는 펍 어려워 질 것 같다. 특히 계란처리장에 출하하고 있는 양계장으로써 소비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양계장은 특히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반하여 가족노동으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양계장이나 자가 생산의 계란을 그 지방에서 직접 판매 하고나 배달 시스템등으로써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양계장은 유리한 경영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장차 영국의 양계계층은 소수의 대규모 양계장과 다수의 가족경영적 소규모 양계장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EC 9개국내에서 계란 유통이 자유 거래를 유지하는 한 계절적인 난가의 변동은 당연히 예상된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는 어떤 형태로든 EC 자체에 의한 조정을 하던, 자발적인 통제 내지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이 예상된다.

현재로써는 국내에 필요 하리만큼 산란계가 사육되지 않고 있는 국가도 있어 그리 심각하지는 않지만 조만간 계란의 생산량 각부란(殼付卵)가 공란등의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의 데타등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 부로일러 생산 29억수

—미 국—

미국 농무성의 통계에 의하면 1973년 11월 30일까지의 과거 1년간의 미국 부로일러 생산 수수는 29억 2,300만수로써 이는 전년도인 1972년의 2%가 준(減)것이다.

그러나 부로일러 가격은 파운드 23.9센트(키로당 210원 32전)이며 전년도의 14.1센트 보다는 9.8센트가 오른 것이다. 이리하여 부로일러생산액은 25억 9,600만弗이나 되어 전년도보다 1/3 이상이 높아졌다. 1973년에 출하된 1수당 평균 생체중은 3.7파운드(약 1,678g)이며 전년과 같은

크기 이었다.

주별(州別)생산 수수는, 아칸소주가 5억수로 tops이며 그 다음으로 조지아, 알라바마의 순이다.

미국의 칠면조(七面鳥) 생산은 1973년에는 1억 3,200만수로 전년도 보다는 2%가 늘어났다. 생산자 출하 가격은 파운드당 38.2센트(킬로당336원)로써 1972년의 22.2센트에 비하면 16센트가 오른 것이다.

칠면조는 미네소타가 생산州의 으뜸으로 2,300만수며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리나, 미조리의 순

이다.

## 多收穫 옥수수 開發

—멕시코—

멕시코 農業相은 多收穫을 올릴수 있는 신종 옥수수를 개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슈퍼스몰이라고 불리는 키가 작은 이 신종 옥수수는 북부 멕시코에서 개발되었는데 20년전 처음으로 다수확종 재배를 시도 성공함으로써 소위 綠色革命을 이룩하게 되었다고 농업성 대변인이 말했다. 이 신종 옥수수로 ha當 19톤의 옥수수 이삭을 수확하였는데 이는 재래종의 평균수확량 5톤에 비하면 약 4배에 달하는 것이다.

# 발전도상국의 양계과제

—아프리카 諸國—



아프리카 여러나라에도 양계는 꽤 많이 성행되고 있어 이제 계란과 계육을 역으로부터 수입한다는 것은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양계를 앞으로 더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다. 현재 종계는 재래의 계종만으로는 생산능력이 극히 나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종계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종계도 관리가 좋을때는 재래의 토종보다 월등하게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것은 틀림 없으나 계통, 품종등에 따르는 지역 환경에의 적응성에 대한 능력점정도 필요한 사항의 하나일 것이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로서는 각국이 조금이라도 값싸고 좋은 병아리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대규모의 부화장을 지역적으로만 들어서 대륙내에서 만든 상호 공수(空輸)로써 구

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제창하고 있다.

곡물을 사료로써 이용 하는데는 그 저장기술도 대단히 중요한데 남아프리카의 일부지역에서와 같이 고온 다습(高溫多濕)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 사막지대에 가까운 곳에서는 혹서하(酷暑下)에서의 사료영양, 요구율등에 관하여서도 연구의 여지가 많다.

계병에 관하여는 농촌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에 백신 접종이 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 양계장에서 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며 지역적인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환경오염을 법적으로 규제 ?

—영국—

이나라에서도 닭과 기타가축의 분뇨(糞尿)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로 되고 있다. 그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규제가 정부에 의하여 취하여 지려하고 있다. 이는 악취방지의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 조사단이 금년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결정되리라 한다. 이조사단은 이미 중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영국의 일반 주민은 축산농가로부터의 악취에 대하여 혐오를 갖고 있다고 한다.

조사단이 방문한 축산농가중에 가끔 사냥농가가 지역 주민의 환

경오염을 가장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229건의 예중 13개가 악취 방지를 효과있게 잘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93에는 부분적으로 방지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123에는 잘안되고 있다. 방취제등은 가격도 비싸고, 주의깊게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보인다. 조사단의 의견으로서는 계분을 건조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2년쯤 이내에 생기리라 보이나 그것이 어느정도 실용화 될 것이냐에 대하여는 석유 위기와와의 관련도 무시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부터 배합 사료값을 톤당 8천 5백~8천 6백엔씩 인상했다. 일본의 사료메이커인 일본농산공업과

일본배합사료등은 미국으로부터의 원료수입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환율차손(換率差損)이 크고 국내 수송비가 올라 배합사료의 공장도 가격을 톤당 8천 5백~8천 6백엔을 올린 6만 7천~6만 8천엔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日本 축산물 가격 안정대책 서둘러

일본에서는 국내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가격안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배합사료 쇠고기, 달걀에 대하여 돼지고기와 가공원료화에 이어 가격안정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74년 8월 12일 農相의 자문기관인 축산진흥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안을 작성 1975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키로 하여 서둘고 있다.

## 日本 配合飼料 값 올라

일본사료업계는 지난 10월 1일